



기호 1번

성명

한 동 수

소속(근무처)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소화기내과

■ 편집인 이력 (총 2년)

2003-2005 Korean Journal of Gastroenterology 편집인
 2005-2008 의편협 교육연수위원회 위원
 2008-2011 의편협 교육연수위원회 위원장
 2011-2014 의편협 출판윤리위원회 위원
 2014-2017 의편협 출판윤리위원회 간사
 2017-2020 의편협 출판윤리위원회 위원장
 2019- deputy editor, Intestinal Research
 2021-현재 의편협 부회장

■ 후보자 정책 공약

저는 2005년 Korean Journal of Gastroenterology 편집인을 마치고 18년 동안 의편협 교육연수위원회와 출판윤리위원회에서 다양한 자격으로 경험을 쌓았습니다. 특히 출판윤리와 관련하여 다양한 주제를 발굴하고, 강의를 하였으며 주요 관련 출판물 제작에 관여하였습니다.

의편협은 그 동안 국내 학술지가 국제화하고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초보 학술지가 기틀을 잡아 중견 학술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양육베드 역할을 하였습니다. 덕분에 많은 학술지가 국제색인에 등재될 수 있었으며 현재도 학술지 수준을 유지하는데 큰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도 KoreaMed, KoreaMed Synapse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수용제공함으로써 공공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지대하였습니다.

저는 기존 의편협이 해왔던 역할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내외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의편협을 운영하겠습니다. 기존 윤리적인 문제 이외에 지적 재산권, 이해관계의 쟁점, open access 저널의 부실화, 전문가심사 윤리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념을 수용, 교육하며 각 학술지가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외부 기관과의 교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그 동안 의편협이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는 의료계와 외부를 연결하는 지적 소통의 통로로 사용되어 왔고, 신생학술지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기존 인터페이스를 개선하여 개방성을 강화하고 지난 임원진에 이어 시스템을 발전시키는데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학술지 출판을 담당하는 다양한 직역과의 소통을 늘리겠습니다. 현재의 학술지 출간은 편집인 뿐 아니라 다양한 직역과의 협업과 헌신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편집인과 쉬운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각 직역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학술지 출간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